

# 박세당의 『後北征錄』 고찰

## - 변방유람과 시쓰기를 중심으로

주영아\*

### < 차례 >

1. 서론
2. 여행의 설렘으로 마주한 豐沛之鄉
3. 望雲亭에서의 고통과 무상한 세월
4. 楓嶽 遊山客의 탄성과 邊方의 기억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688년 박세당이 함경도를 다녀온 유람기 『후북정록』에 대한 고찰이다. 『후북정록』은 박세당이 조부(祖父) 박동선(朴東善)과 부(父) 박정(朴炆)의 연시례(延諡禮)에 참석하기 위해 오른 여정(旅程)에서 만나는 지형지물에 대한 감흥을 중심으로 쓴 작품을 모은 시집이다.

박세당의 시는 매우 현실적이고 감각적이며,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詩情)을 드러낸다. 『후북정록』의 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53제 76수의 시 중 많은 부분이 사물이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즉물적인 심사를 드러내고 있으며, 시인의 극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시에서 줄 수 있는 긴장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본고에서는 『후북정록』을 고찰함에 있어 박세당의 경학론에 기반하기보다는 그의 문장론과 시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문장은 평이하고 조리에 맞는 서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시는 의취(意趣)와 정감을 위

\* 강원대학교

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글은 앞뒤가 맞아야 서걱거리지 않고,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장론과 시론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 박세당(朴世堂), 『후북정록(後北征錄)』, 함경도, 변방, 유람기, 연시례(延諡禮), 사의도정(寫意道情)

## 1. 서론

박세당(朴世堂, 1627~1703)에게 문장은 평이하고 조리에 맞는 서술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문장의 내용은 의취와 정감을 위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산문이든 운문이든 평포온순(平鋪穩順)<sup>1)</sup>한 문장과 사의도정(寫意道情)<sup>2)</sup>한 내용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글쓰기에 대한 박세당의 인식은 사서(四書)를 주해하여 『사변록(思辨錄)』으로 엮고, 『노자(老子)』를 주해하여 『신주도덕경(新注道德經)』, 『장자(莊子)』를 주해하여 『남화경주해산보(南華經註解刪補)』로 엮은 것과는 또 다른 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시를 쓸 때는 한 글자를 두고 전전공공하면서 내용과 닿지 않는 문자를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박세당의 시는 매우 현실적이고 감각적이며,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내용으로 시인의 정감을 고스란히 표현한다<sup>3)</sup>.

박세당은 1688년 함경도에서 박동선(朴東善)과 박정(朴炆)의 연시례(延諡禮)에 참석하기 위해 차남 태보(泰輔)를 대동하고 함경도를 가게 된다.

1) 박세당, 『서계집』 권17, 「寄子泰輔」. 但作文時, 必去生僻之病, 務爲平鋪穩順, 文體自好.

2) 박세당, 『서계집』 권7, 「백곡집서」. 詩本所以寫意道情, 則期乎情愜意當而止.

3) 주영아, 「박세당의 사상체계와 작품세계」, pp.151.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1.

『후북정록』은 이때 쓴 시를 묶은 유람 시집이다. 「연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진(1688) 숙종 14년 선생 60세>

○ 봄에 북관(北關)의 순영(巡營)으로 가 정헌공(貞憲公)과 충숙공(忠肅公) 두 선대의 시호(諡號)를 맞이하는 예(禮)에 참여하였다.

그 당시 형의 아들 태상(泰尙)이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순영에서 두 선대의 시호를 맞이하였는데, 선생이 가서 행례(行禮)에 참여하였다. 과주 목사(坡州牧使)로 있던 아들 태보(泰輔)가 시종하였다.

○ 풍악산(楓嶽山)을 역방하고 돌아왔다.

이 길에 지은 것으로 『후북정록(後北征錄)』이 있다.<sup>4)</sup>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조부 박동선(朴東善, 1562~1640)과 부 박정(朴炡, 1596~1632)의 연시례(延諡禮)가 함경도에서 있었다. 박정은 반정에 참여하였다는 공훈이 인정되어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었으나 박동선은 모의는 했으나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공신 책록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공신록에 오르지 못했다.

박동선(朴東善)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동선은 타고 난 자질이 부드럽고 후하나 일을 당해서는 강직하였다. 일찍이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도 바른 도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다. 폐모를 정청하던 날 하리(下吏)가 그 이름을 진참(進參)의 대열에 몰래 써 놓았는데, 동선이 그 사실을 알고 즉시 불참(不參)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니,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 아들 박정(朴炡)과 함께 의거의 모의에 참여하였다<sup>5)</sup>.

반남가(潘南家)는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고려말 박상충(朴尙衷, 1332~1375)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래 박동선과 박정이 인조반

4) 박세당 『서계집』 권3 한국고전번역원. 이 논문의 『서계집』 한문한역(漢文韓譯)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르고, 의역이 심한 부분은 가능한 한 필자가 직역으로 고쳐 쓴다.

5) 『인조실록』 인조 1년 1월 16일 두 번째 기사. 한국고전번역원 역.

정에 기여하면서 중앙 벌열(閥閱)의 위치를 공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시호가 1688년에 내려지면서 반남가의 장손이었던 박태상(朴泰尙, 1636~1696)이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함경도 순영에서 연시례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후북정록』 서두에 “무진년 봄, 형의 아들 관서공 태상이 함경 감사가 되었다. 선세(先世)의 시호를 영중에서 맞이하게 되어 선생이 갔을 때 지은 것이다.”<sup>6)</sup>라고 기록하고 있어 「연보」의 기록과 일치한다. 이 기록으로 본다면 박정과 박동선의 역명지전(易名之典)은 비교적 빠른 시일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의 반남가의 위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상충(朴尙衷, 1332~1375)은 1681년에 문정(文正), 박소(朴紹, 1493~1534)와 박응천(朴應川, ?~1581)은 1696년에 각각 문강(文康)과 정의(靖懿)를 시호로 받았다. 반남가에 있어서는 17세기말에 가장 흥성하였으며, 박세당의 일생 중 가장 평온한 잠깐의 시기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때 쓴 시를 모아 『후북정록』으로 묶어 이름하였다.

『후북정록』에는 53제 76수의 작품이 실려 있다. 작품은 다음과 같다.

순서	제목	비고	*	순서	제목	비고
1	白鷺洲		*	27	草原	
2	白鷺洲水至永平東 與白雲溪水合流		*	28	泰維在草原寫漁父辭作屏人傳刻路間 所經屏障多見之 感而作此	
3	三釜落	3수	*	29	謁濬源殿	
4	披襟亭		*	30	道中見雪不見春色	
5	將入楓岳 阻雪不果		*	31	南山高山之間 路傍崖畔 忽見辛夷半開	2수
6	菩提坂		*	32	將過嶺 却寄家姪	2수
7	新安驛	2수	*	33	淮陽 別徐吏部	
8	淮陽道中		*	34	西津	
9	海松嶺		*	35	花川道中	2수

6) 박세당 『서계집』 권3. 戊辰春, 兄子判書公泰尙, 爲咸鏡監司. 延先世諡號於營中, 先生往赴時作.

10	西津橋		**	36	自花川轉入楓岳 行數十里 溪谷深邃 人煙不絕	
11	鐵嶺		*	37	入谷以來 雪初消 泥淖尤惡	
12	昔爲北道兵馬評事 還過此嶺 見衆木參天 而一檜特挺出異常 今來其間二十二年矣 檜已不見		** ** **	38	長安寺 次月沙韻 贈僧美	
13	深溪		*	39	正陽寺 逢豐悅上人	
14	釋王寺		*	40	楓岳四絕	4수 (4절)
15	寺有太祖藏經記 及緇徒所傳錄潛龍時事		**	41	出山	
16	贈寺僧顓絢	2수	** **	42	出山後 路上不覺頻顧 因而有作	
17	釋王寺僧才憲 自言往來石泉菴		**	43	次泰輔出山詩韻	
18	顓絢問道有朝聞夕死 與一貫之異其說云云 泰輔以詩答之 感而作此		** ** **	44	斷髮嶺	
19	至咸興 用泰輔韻 寄金象卿評事		** **	45	豐悅遣弟子 送至斷髮嶺	
20	知樂亭 次宜寧相國韻		*	46	下嶺宿楸井	
21	題知樂亭		** ** **	47	是夜雨作 晚朝少止 遂行	2수 在山時有小雨
22	次家姪與徐吏部 文裕 酬唱韻	4수	** **	48	禾積淵	
23	咸興人朱翼文 自言所居有亭臨流		** **	49	金水亭	3수
24	離北臨發 復寄象卿評事		** ** ** ** ** **	50	石上 刻楊蓬萊自書數作 其三五七言詩云 綠綺琴伯牙心 鍾子是知音 一彈復一吟 泠泠虛籟起遙岑 江月娟娟江水深 詩甚佳 輒效爲之 見其難追也	
25	咸興妓送客必出萬歲橋 常多有離別之色 戲爲情詞	2수	** **	51	望水落山	
26	過望雲亭有作		** **	52	南還後 舍姪次過嶺韻見寄 再用前	4수

					韻	
			*	53	復用前韻 道北邊 之樂	4수

『후북정록』에 등재된 작품 역시 사의도정의 서정성이 드러난다. 박세당의 시쓰기는 의취와 정감을 위주로 표현하는 사의도정(寫意道情)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객관적 상관물이 주는 의미는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자 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정감은 억지로 꾸미려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북정록』에 실린 작품들의 대부분은 이 원칙에서 쓰였고, 유람시를 더욱 생동감 있게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함경도를 유람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시인의 감성, 회포, 의도, 객심(客心) 등을 읽어내고, 그 서정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여행의 설렘으로 마주한 豊沛之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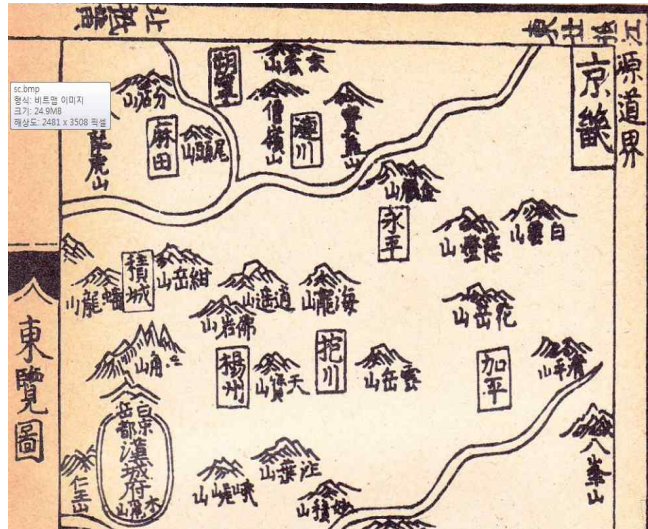
함경도 기행(紀行)의 시작은 백로주(白鷺洲)에서 시작된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백로주는 이번 여정으로 세 번째 방문한 장소다. 우선 『후북정록』에 등재된 <백로주(白鷺洲)>를 감상해 보자.

白鷺洲邊三度來  
春流翠壁眼還開  
劫思舊事傷心極  
四十年間夢一回

백로주 가에 세 번째 오니  
봄이 흐르는 푸른 절벽, 눈이 다시 반갑네  
문득 옛일 생각에 상심 지극하나  
40년 세월 한바탕 꿈같구나  
<백로주(白鷺洲)>

20세가 되던 1648년 강원도 흡곡(翁谷)에 현령(縣令)으로 있는 형 박세견(朴世堅, 1619~1683)을 보러 갔을 때 첫 번째 들렀던 곳이다. 이때

쓴 시 중에는 백로주라는 직접적인 제목의 시는 없으나 당시의 시집 『동행습낭(東行拾囊)』의 첫 시가 <대탄(大灘)>이다. 물 이름은 없지만 남구만이 이 시를 보고 “연천의 대탄을 지나다가”<sup>7)</sup>라고 설명을 하였다. <대탄>이 영평의 백로주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연천과 영평을 경계로 흐르는 물이 백로주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東覽圖>

위 시에서 “백로주 가에 세 번째 오니”를 미루어 보아도 <대탄>은 백로주를 배경으로 쓴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왔을 때의 백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곳이었으나 지금 다시 찾은 시인의 눈에 백로주의 모습은 익숙한 것이지만 지난했던 세월이 녹록치 않았음을 반추시키는 매개다.

두 번째는 38세 때인 1666년 함경도 병마평사로 나갔던 때이다. 당시 쓴 시는 『북정록(北征錄)』으로 묶였는데, 그 시집의 첫 시는 <백로주유감(白鷺洲有感)> 2수와 <백로주차석상운(白鷺洲次石上韻)>이다. <백로주유감>에서는 “손가락을 꼽아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 지금으로부터 18년이네(屈指念前事, 于今十八年)”라고 하여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고 있

7) 남구만, 『약천집』 제23권 「西溪朴公世堂言行錄」. 공이 나에게 부쳐 준 시장(詩章)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모두 잊었다. 공이 나에게 부쳐 준 시장(詩章)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모두 잊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무자년(1648) 가을에 연천(漣川)의 대탄(大灘)을 지나다가 지은 칠언 율시 한 연구(聯句)로, “물을 따라가는 배는 붉은 나뭇잎과 함께 내려가고, 백사장에 조는 사람은 백구와 함께 한가하다. [逐水船將紅葉下 眠沙人共白鷗閑]”는 것이니, 시구가 뛰어나 외율 만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역.

다. 또 『후북정록』에 실린 <백로주>에도 청년이었던 40년 전에 처음 보았던 백로주를 백발이 되어 다시 와 보니 상처 난 인생이 덧없음을 백로주의 자연과 병치시켜 표현하였다. <백로주>는 “시는 의와 정을 표현한다”는 박세당의 시쓰기 원칙인 사의도정(寫意道情)을 가감없이 표출한 작품이다.

백로주를 배경으로 쓴 시 한 편을 더 감상해 보자.

白雲溪水自東來	백운계 물은 동에서 오고
白鷺洲流至北回	백로주 물은 북으로 돌아 도네.
玉勒金鞭疑並驟	옥재갈 금채찍 나란히 달리는 듯하니
兩邊唯見夕陽開	두 강가에 열리는 석양만 볼 뿐이네

<백로주의 물이 영평 동쪽에 이르렀다가 백운계의 물과 합하여 흐르다(白鷺洲水至永平東 與白雲溪水合流)>

앞 시 <백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물줄기의 흐름과 저물녘 풍경만 한가롭다. 시인의 심사는 어디에도 없다. 앞 시 <백로주>에서 작정하고 한바탕 풀어낸 고단한 인생의 회한은 백로주 풍경에 묻어두고 선대의 연시례에 참석하고 풍악산 유람도 하고 싶은 객심(客心)이 동했는지 모를 일이다. 시인은 양주 본가에서 시작하여 익숙한 생활 지형을 벗어난 후 옛 여행의 반가운 풍경을 마주하고 한껏 한가로이 풍광에 심취한 나그네로 돌아갔을 것이다.

함경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낙후된 변방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지리적 특성에 힘입어 전통적으로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되어 궁마지향(弓馬之鄉)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국경지역의 잦은 무력 충돌로 인하여 무(武)가 숭상되는 상무지지(尙武之地)의 고장으로 불리었다. 또 비록 험준한 변방이었지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출생지였던 함경도인지라 풍패지향(豐沛之鄉)의 자부심이 높았던 곳이기도 하다<sup>8)</sup>. 곳곳에 태조와

8) 주영아, <박세당의 관북환유기(關北宦遊記), 북정록(北征錄) 연구>,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17집.

관련된 기록이 있어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후북정록』에 태조를 언급한 작품 <사유태조장경기 급치도소전록잠룡시사(寺有太祖藏經記 及緇徒所傳錄潛龍時事)> 2수와 <알준원전(謁濬源殿)>이 있다. 감상해 보자.

當日藏經意	당시 불경 수장(守藏)은
非緣竺教尊	불교 높여서가 아니라네
應存一切法	마땅히 모든 법 보존하여
聊絕禍源根	화의 근원 단절하기 위함일 뿐

其二

聖祖潛龍跡	잠룡 때 성조 자취
流傳妄說多	허망한 전설이 많네
空餘雪峯窟	부질없이 설봉과 굴 남았으니
誰見黑頭陀	누가 흑두타를 보겠는가

<석왕사에 <태조장경기> 및 승려들끼리 전하는 <잠룡시사록>이 있다(寺有太祖藏經記 及緇徒所傳錄潛龍時事)>

위 시는 조선에서 불교의 위상과 태조의 근원적 기반이 깔려 있다. 태조의 3대 정책과 관련하여 송유억불정책(抑佛崇儒政策)이 건국이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조가 불경을 수장했했었음을 <태조장경기>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경이 석왕사에 보관해야 했던 이유를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지 세간의 모든 법과 규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는 불교를 억제하였던 태조의 건국이념과 행동이 배치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실제 조선초기의 억불정책이 정도전의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배척되기는 했지만, 조선의 수도 이전에 무학대사의 조언을 듣는 과정 등을 살펴보면 현실에서는 억불(抑佛)이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이후 태종 이후 극렬하게 배불정책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태조 이성계는 구체적인 억불이나 배불의 의미보다는 조선 건국에

서 포착된 각양각색의 학문이나 종교에 대해 포괄적으로 탐독하여 득실을 구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세당은 석왕사에서 태조 이성계를 편향된 사상이나 정책에서 조선의 건국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정제된 학문과 이념에서 시작한 인물로 포착하여 묘사하였다.

박세당은 위 시 두 번째인 기이(其二)에서 승려들이 불교와 관련하여 태조에 대한 옛이야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위 시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승려들이 말하는 즉위 전 태조의 사적은 불교와 사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설봉(雪峰)에서 불경을 외웠든지 굴(窟)에서 기행(奇行)이나 기도를 했다든지 등의 일들이 전설로 남아 있었음에 분명하다. 이러한 일들을 승려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 서 기정사실인 것 마냥 왈가왈부하는 모습이 유자(儒者)의 눈에는 거슬렸던 모양이다. 마지막 행에서 “누가 흑두타를 보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고승대덕을 의미하는 진정한 흑두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강한 여운을 남긴다. 이는 흑두타는 고승대덕이요 그것은 곧 태조의 높은 덕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로 남는다. 결국 석왕사에서 횡설수설 전하는 불가적(佛家的) 태조는 모두 허황된 일설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박세당은 불교 교리의 지나친 억측과 사찰의 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였으나 사찰이나 암자에 자주 드나들면서 승려와의 교류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후북정록』에도 절과 승려에 대한 조우가 드러나는 작품이 드물지 않게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시를 제외하고도 <증사승의현(贈寺僧顓絢)>, <석왕사승재헌 자언왕래석천암(釋王寺僧才憲 自言往來石泉菴)>, <석왕사(釋王寺)>, <의현문도유조문석사 여일관지이기설운운 태보이시답지 감이작차(顓絢問道有朝聞夕死 與一貫之異其說云云 泰輔以詩答之 感而作此)>, <장안사 차월사운 증승미(長安寺 次月沙韻 贈僧美)>, <정양사 봉풍열상인(正陽寺 逢豐悅上人)>, <풍열견제자 송지단발령(豐悅遣弟子 送至斷髮嶺)>에서 승려와의 교류가 긴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양사 봉풍열상인>에서 보이는 승려 풍열은 박세당이 기거하는 수락산 옆 도봉산에서 있으면서 왕래하여 16년의 인연이 있다. 산 속의 사람인 풍열은 야원

학으로 속세의 자신은 늙은 닭으로 표현하며 고단한 여로(旅路)를 풀어내는 장면에서는 불교를 배척하는 유자(儒者)의 시선이 어디에도 없다. 오랜 친구를 만남 설렘만이 있을 뿐이다.

풍쾌지향(豊沛之鄉)의 자긍심이 높았던 함경도에 구체적으로 태조의 흔적이 있는 곳은 준원전(濬源殿)이다. 다음은 <알준원전(謁濬源殿)>이다.

東西萬里宅山河	동서 만리 산하가 깃들여도
猶自枌榆眷戀多	분유이기에 꺾이나 그리웠네
肖寫龍顏眞盡妙	베긴 듯 그린 용안, 참으로 극묘하니
耳邊如聽大風歌	귓가에 대풍가 들리는 듯

준원전은 함경도 영흥대도호부 동남쪽으로 13리 흑석리(黑石里)에 있으니, 곧 환조(桓祖)의 옛 저택으로 태조(太祖)가 출생한 땅이다. 계해년에 정인지(鄭麟趾)가 태조의 초상화를 여기에 받들어 모셨다<sup>9)</sup>. 태조의 초상화에 대해 여타의 시인들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사실적이며 위엄있는 모습인 듯하다. 이숙함의 시에 “초상화를 우러러 절하고 뵈오니, 거듭 의의(依依)하여라. 분명 한 폭의 단청(丹青)이건만, 황홀한 중동(中瞳)이 일월같이 빛나네<sup>10)</sup>”라고 하였다. 박세당이 바라보는 태조의 초상화보다 더 한껏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글이라 하겠다.

<알준원전>에서 시인은 함경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함경도가 그리운 것은 자신의 젊은 날의 일터였기도 아름다운 산하가 펼쳐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리운 이유는 이곳이 태조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세당의 이번 함경도 방문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번 함경도 방문은 선세의 연시례에 참가하기 위함이었고 그 맥락과 같이 하여 귀가하는 여정(旅程)에 준원전에 들렀고 태조와 조선, 그리고 조선의 사대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귓가에 대풍

9)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V. 민족문화추진회. pp.170

10)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V. 민족문화추진회. pp.170

가 들리는 듯”이라는 마지막 행의 의미를 읊조리는 시인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고조(漢高祖)의 고사를 끌어들이며 조선의 정통성을 주지시키면서 한(漢)의 역사를 연 한고조와 조선의 역사를 연 태조를 동일시하여 역사의 무궁하고 영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 3. 望雲亭에서의 고통과 무상한 세월

두 번째 함경도에 다녀온 1688년 겨울부터 1689년 초봄까지의 기행을 기록한 『후북정록』 시기가 박세당에게는 가장 평온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장 아픈 시기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2년 전인 1686년 장남 태유(泰維, 1648~1686)의 죽음이 있었고, 함경도에 함께 동행했던 태보(泰輔, 1654~1689)를 1689년 5월에 기사환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잃게 된다. 함경도 여정에서 부딪친 태유의 흔적은 그리움과 슬픔으로 「부록」에 실려 있다.

○ 지평군(持平君)이 일찍이 고산 찰방으로 있을 때, 우헌(郵軒) 곁에 정자를 짓고 ‘망운정(望雲亭)’이라 편액하여 양공(梁公)이 태항산(太行山)에서 부친을 그리워한 마음을 담았다. 조 부학(趙副學) 지겸(持謙)이 기문(記文)을 지었다.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이곳을 지나다가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감회를 가누지 못하여 시를 지어 슬픔을 기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望雲亭外白雲飛  
人去亭空事却非  
唯有斷腸猿自哭  
有情應爲盡沾衣

망운정 밖으로 흰 구름이 나는데  
사람 가고 정자 비어 말이 아니로다  
애끓는 이 애비 통곡 절로 나오니  
감정이 있어 눈물이 옷깃을 다 적시네<sup>11)</sup>

「부록」에는 제목이 없이 실렸으나 『후북정록』에는 <망운정을 지나면서

11) 박세당, 『서계집』 22권, 「부록」 연보, 한국고전번역원 역.

쓰다(過望雲亭有作)>라는 제목이 있다. 망운정은 박태유가 고산도 찰방으로 좌천되었을 때 고향의 부모를 그리며 세운 정자다<sup>12)</sup>. 그곳은 박태유가 병약한 상태에서 풍토병이 더해져 관직을 그만두기까지 객지에서 고독한 심사를 달래는 장소였다. 사직 후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1686년 3월에 사망한 장남 태유의 흔적을 1688년 겨울에 만나게 된 것이다. 태유에 대한 서글픔을 담은 시 오언절구와 칠언절구 두 편이 더 있다. 먼저 오언시부터 보자.

愁山含晩色  
恨水瀉寒聲  
無限沅湘意  
行人血滿纓

시름하는 산은 저물어가는 빛을 머금고  
한스러운 물은 쓸쓸한 소리를 쏟아내네  
한없는 원상의 뜻이여  
행인의 피가 갓끈에 가득할 것이네  
<초원(草原)>

위 시는 함경도 초원 변방에서 망연했을 태유의 심정을 아버지인 박세당이 주체이면서 객체가 되어 쏟아내고 있다. 절경인 산수도 태유의 부재로 인해 시름이 가득하고, 한을 품은 늙은 나그네의 서러움에 산수가 동참하는 물아일체를 보여주고 있다. 3행에서는 당파에 밀려 변방으로 좌천된 태유를 굴원(屈原)에 빗대고 있다. 원상(沅湘)은 굴원의 유배지에 있던 강으로 여기서는 습한 지역인 초원을 가리키는 동시에 굴원의 이미지와 대칭한다. 굴원이 충간(忠諫)하다 억울하게 참소 당한 뜻과 태유의 상황을 동일시하였다. 실제 박태유는 당시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의 전횡에 대해 거침없이 탄핵하다가 조정을 장악하던 노론 계열의 공론이 조정으로 모아지면서 고산도 찰방으로 좌천되었던 것이다.

12) 박태보, 『정재집』 권4, 「행장」 <朝鮮故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朴君家狀>. 남 부인이 병석에서 앵두를 먹고 싶다하셨으나 구하지 못하자, 종신토록 앵두를 먹지 않았다. 그가 북쪽에 있을 때 아버지를 사모하고 그리워하여 두서너 달에 반드시 돌아가고자 하였다. 역관에서 보이는 곳에 정자를 지어 거처하면서 망운정이라 편액하고 그 뜻을 부쳤다(南夫人病索櫻桃不得, 終身不食櫻桃. 其在北, 思戀庭闈, 數月必一請告歸. 覲於驛館, 作亭居之, 扁曰望雲, 以寓其意.)

다음 시에서는 한층 더 굴원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태유의 심경을 대변하였다. 태유가 굴원의 <어부사>를 통해 자신의 심사를 표현하고 다스리려 했음을 알고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은 회한을 더하여 슬픔을 표현하였다.

枯槁當年爲獨醒	깡마른 채 당년에 홀로 깨었었지
江潭終古恨難平	강담은 예로부터 한이 평온하기 어렵지
深心不感滄浪曲	마음으로는 창랑곡을 느끼지 못했을 터
何事慙慙寫在屏	무슨 일로 부지런히 병풍에 썼을꼬

<태유가 초원에 있을 때 어부사를 써서 병풍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전하여 새겼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병장을 많이 본다. 느낌이 있어 이 시를 짓다(泰維在草原寫漁父辭作屏 人傳刻路間 所經屏障多見之感而作此)>

다짜고짜 1행부터 시작된 굴원의 깡마른 행색에서 태유의 모습을 찾고 있다. 태유의 처지를 다독이며 이해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도 있다. 고고(枯槁)는 “고고안색(枯槁顏色)”에서 비롯된 말로 유배지에서의 굴원의 행색이다. 단순히 깡마름의 의미를 넘어 충신의 깨끗한 성품의 표현이기도 하다. 유배지 산천이 어찌 평온할 수 있었겠는가. 굴원에게도 강담은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유의 처지를 생각하면 전경후정(前景後情)으로 시의 완성도를 높일 이유가 없었다.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쓰기는 대상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로 시인의 감정을 사실감 있게 드러내는 서정시에 강한 면모를 드러낸다.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은 우리나라 문장론과 시론에 대하여 “우리나라 문장은 김창협(金昌協)의 <식암집서>에서 다하였고, 우리나라 시는 박세당의 <백곡집서>에서 다하였다. 우리나라의 문장은 박세당에게서 집대성되었고 시 또한 그러하다. 서계의 문장은 동방에서만 뿐만 아니라 남송 이래로도 짝할 자가 없을 것이다. 동국의 비문은 응당 박세당의 최완성비를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sup>13)</sup>라고 하였다. ‘시는 본

래 의(意)와 정(情)을 표현한다’는 그의 시론 사의도정(寫意道情)과 일치한다<sup>14)</sup>.

흔탁한 세상에서 홀로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살았을 굴원일지라도 적막강산 유배지에서의 한스러움은 평온할 리가 만무하다. 중앙에서 관직을 얻지 못하고 변방인 고산도 찰방으로 있었던 태유가 쫓겨난 굴원의 심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굴원의 <어부사>를 베껴 쓰면서 자신을 한없이 다스렸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지 그지없다. 더욱이 굴원이 <어부사>에서 표현했던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했던 굴원의 초탈한 심정을 갖지 못하면서 <어부사>를 한없이 베껴 썼을 태유의 처지에 끝없는 연민을 표현하였다.

박태유는 안진경(顔眞卿, 709~785) 필체를 수용한 명필로 당대 17세기에 이름이 떨쳤다<sup>15)</sup>. 태유가 없는 그곳에는 여전히 태유가 쓴 <어부사> 병풍이 남았다. 길 가는 사람들이 병풍을 보는 것을 본 아버지 박세당은 무정하게 지나버린 세월 앞에서 무너지고 무너졌음은 글이 아니라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13) 남극관, 『夢嚙集』 坤, 「雜著」 <謝施子 百九十二則>. 東國之文, 金昌協息菴集序盡之矣. 東國之詩, 西溪栢谷集序盡之矣. 東國之文, 集成於西溪, 詩亦隨之. 西溪之文, 不特東方所未有, 恐南宋以下無其儔也.

14) 주영아, <박세당의 사상체계와 작품세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pp.85, 2011.

15) 박태보, 『정재집』 권4, 「행장」 <朝鮮故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朴君家狀>. 군은 기예가 좋아서 홀로 글씨를 써서 재주를 자득하였다. 용필에는 뼈대와 살집이 서로 조화로우며 매끄러운 솟돌에 광채가 나는 듯하여 글씨가 크면 클수록 더욱 건장하였고 작으면 작을수록 아름다웠다. 여러 선비들의 비문과 현판을 써서 글씨 있는 곳이 많다. 글자 하나 종이 한 쪽이라도 가져가면 사람들은 모두 보물로 삼았다. 국초에 글씨를 배우는 자들이 모두 조맹부를 주로 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한호를 배워 글자체의 격이 더욱 비루하였다. 군이 처음으로 안진경의 글씨를 썼다. 한때 글자체가 크게 변하여 연경 저잣거리에서는 안진경 서첩의 값이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君於技藝無所好, 獨其書, 天才自得. 其用筆, 骨肉相停, 砥潤有光, 愈大愈健, 愈小愈媚. 諸公碑板, 多其所書 隻字片紙. 人皆藏去爲寶. 國初學書者, 皆主趙孟頫, 近代更尙韓濩, 體格益卑. 君始得顔魯公書表章之. 一時字體大變, 燕肆魯公書, 爲之價高云.). 『朴泰維 筆蹟 白石遺墨帖』이 수원시 소장으로 전한다.

『후북정록』에는 시간의 흔적이 많이 보인다. 약 20년 단위로 같은 지역을 여행하는 시인에게 함경도로 가는 길은 자연의 변화와 함께 자신도 변화했음을 확인해 주는 반추(反芻)가 된다. <삼부락(三釜落)>에서 2수 중 1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兩見寒流翻石釜  
 峴 보는데  
 今朝昔日節還同  
 中間歲月知多少  
 二十人爲六十翁

차디찬 물이 돌 항아리에서 뒤집어짐을 두 번  
 오늘과 지난날 절기도 같구나  
 그간 세월이 많이 흘러  
 스물 젊은이 예순 노인 되었구나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스물 젊은이 예순 노인 되었구나”를 통해 1648년 흡곡에 갈 때 본 삼부폭포를 보고 이번 여정에서 두 번째로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의 시선은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도 않는 모습이다. 40년이 흐르니 젊은이가 노인이 되었다는 순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변함없이 떨어지는 폭포와 지난 시간의 절기가 오늘의 절기와 같음을 상기하면서 또 다른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 스물이 예순이 되었음으로 표현한 것은 안타까움일 수도 있겠으나 그 시간이 결코 어떠한 표현을 지극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이나 미련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 시 <해송령>을 보면 자연도 역시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세월에 초탈한 모습을 보인다.

默記此經過  
 于今二十年  
 滿山松更老  
 休怪鬢蕭然

여기 지나던 과거 더듬어 보니  
 지금으로부터 20년  
 산에 가득한 소나무 더욱 늙었으니  
 괴이치 말지니. 성근 귀밑털  
 <해송령(海松嶺)>

세월이 무상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자연은 여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과는 다른 시점으로 자연을 관조하고 있다. 시인은 나 자신의 늙음을 오래 된 소나무의 늙음으로 확인해 주면서 자신은 자연과 다르지 않고, 산속의 소나무 또한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감정이입하였다.

<해송령>에서 보이는 시선은 20년 전에 같은 곳을 지나면서 보였던 시선과 확연하게 다르다. 『북정록』에서는 해송령을 지나면서 자연을 감사하거나 자신을 돌아 볼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 1666년 겨울 당시는 병마평사로 부임하는 여정이었던 까닭에 업무와 관련된 지역적 특징을 포착하면서 <과금화전장작(過金化戰場作)>을 지어 “해송강 아래 싸우는 소리 드문데, 변발 삼천 명 중 반은 돌아가지 못했네(海松岡下鬪聲稀 辮髮三千半不歸)”라고 하여 해송령을 그려냈다. <과금화전장작>에서는 치열했던 변방의 옛 전장터 모습을 “해송강 아래”라고 하여 지형적 모습으로 드러냈다. 38세의 관리가 갖는 비장함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해송령>에서 처럼 초탈한 인생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20년의 시간이 동일한 장소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위 시 <해송령>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월을 표현한 작품 <장과령각기가질(將過嶺却寄家姪)>이 있다. 함경 감사 조카 박태상에게 보낸 작품이다.

共是天涯客  
俱爲白髮人  
分携倍惻惻  
回顧故頻頻

모두 천애의 나그네요  
다함께 백발이로다  
헤어짐이 배나 슬퍼  
괜시리 자꾸자꾸 돌아보네

其二

欲過嶺頭去  
更懷橋上情  
茫然千里別  
回首暮雲行

고갯마루 넘어가려다  
다리에서의 심정을 생각하노라  
아득하다 천리의 이별이여  
머리 돌리니 저물녘 구름이 가는구나

<고개를 지나려할 때 문득 조카에게 부치다(將過嶺 却寄家姪)>

『후북정록』에는 박태상에 대한 신뢰와 기대, 염려와 안도 등의 감정이

복잡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때 박태상은 52세였고 박세당은 60세였다.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이 객지에서 만나 혈육의 정으로 바라보니 한없이 슬펐을 것이다. 특히 이곳은 장남 태유의 안타까움과 관련된 함경도가 아니던가. 이런 사정을 들여다본다면 나이 많은 조카가 함경 감사로 직무를 다해야 하는 기대와 안타까움, 또 늙은 조카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이별은 간단치 않은 감정이었을 것이다. 이 시에서는 이별이 이별이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헤어짐의 주체들이 백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이번 여행의 주목적은 연시례에 참석하여 반남가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북정록』에 등재된 작품에는 연시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어떤 이유에서 연시례에 대한 감흥이나 자긍심을 진작하는 내용이 빠졌는지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박세당의 글쓰기 방식을 고찰해 보면 완전히 특별한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 박세당의 『서계집』과 『서계연록』, 『색경』, 『사변록』, 『신주도덕경』, 『남화경주해산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계집』에 묶인 시집 『사연록』은 『서계연록』과 같은 시기 서장관으로 북경을 다녀온 것에 대한 기록인데, 『사연록』에는 북경에서 감흥만 여정에 따라 읊고 있을 뿐, 공식적인 일정에서의 일이나 감정들은 어느 곳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일정은 『서계연록』에 따로 배치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문체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를 익혀 파악한다면 『후북정록』에 반남가의 연시례 절차나 행사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시례를 주관하는 조카 박태상과의 조우와 이별에 대해서만 몇 번 언급<sup>16)</sup>하면 서 이번 여행이 일상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16) <조카가 이부 서문유와 수창하여 지은 것을 차운하다(次家姪與徐吏部文裕酬唱韻)> 四首, <고개를 지나려할 즈음 조카에게 부치다(將過嶺却寄家姪)>, <남쪽으로 돌아온 후에 조카가 <과령>을 차운한 것을 보내와서 다시 앞의 운자를 써서 쓰다(南還後 舍姪次過嶺韻見寄 再用前韻)>

#### 4. 楓嶽 遊山客의 歎聲과 邊方의 記憶

영평의 백로주를 건넌 후 삼부폭포<sup>17)</sup>, 강원도 금화의 피금정<sup>18)</sup>을 거쳐 풍악산에 들러 가려고 했으나 눈 때문에 가지 못하고<sup>19)</sup> 보살판<sup>20)</sup>, 신안역<sup>21)</sup>, 회양<sup>22)</sup>을 거쳐 함경도로 길을 재촉한다. 해송령<sup>23)</sup>, 서진교<sup>24)</sup>를 거쳐 강원도와 함경도의 경계인 철령<sup>25)</sup>에서 곧장 함경도의 석왕사<sup>26)</sup>로 들어가 함흥<sup>27)</sup>부의 지락정<sup>28)</sup>, 망운정<sup>29)</sup>, 준원전<sup>30)</sup>까지 여행의 일정을 소화한다. 그후 다시 돌아가는 길에 풍악산에 들르기 위해 강원도 회양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때도 여전히 눈이 많았기 때문에 풍악산을 포기하고 화천으로 가려고 했으나<sup>31)</sup> 마음을 바꿔 풍악산으로<sup>32)</sup> 발걸음을 돌려 드디

17) <三釜落> 二首. 兩見寒流翻石瓮, 今朝昔日節還同. 中間歲月知多少, 二十人爲六十翁. // 欲測神功可得名, 霜斤雪斧鑿難成. 龍門三級惟聞說, 不伏雄奇讓作兄.

18) <披襟亭>. 少憩披襟亭, 因知南澗清. 主人能設繪, 歸恐近清明.

19) <풍악산으로 들어가려는데 눈에 막혀 가지 못하다(將入楓岳 阻雪不果)>, 古雪難消今雪頻, 春來猶復斷遊人. 應知萬二千峯白, 說自胚胎是不眞.

20) <菩提坂>. 菩提坂險問如何, 見說行人殺馬多. 不是王尊輕叱馭, 思量九折但坡陀.

21) <新安驛> 二首. 低山兼淺水, 此處異風煙. 不似回頭地, 唯窺仰面天. // 其二. 高柳分千室, 平郊帶一川. 誰知窮峽裏, 還有少寬天.

22) <淮陽道中>. 行度飛絲嶺, 悠悠去路長. 地寒春却到, 溪柳雪中黃.

23) <海松嶺>. 默記此經過, 于今二十年. 滿山松更老, 休怪鬢蕭然.

24) <西津橋>. 我問西津水, 何時過故居. 不須添淚去, 尺鯉可傳書.

25) <鐵嶺>. 鐵嶺高高直界天, 數州下看似棋圓. 羊腸未盡日西匿, 山驛家家生夕煙.

26) <釋王寺>. 斷俗橋頭流水清, 回回石徑入雲橫. 只愁寺被層峯隔, 倒喜門開迴野平.

27) <至咸興 用泰輔韻 寄金象卿評事>. 馬首唯看向北天, 行來恰得半山川. 何方可縮此千里, 不耐回頭思惘然.

28) <知樂亭 次宜寧相國韻>, <題知樂亭>. 南華仙吏語堪思, 下濠梁卽若斯. 但得善推能默契, 唯應強恕是眞師. 試論今日知知處, 亦看當年樂樂時. 樂果不知知不樂, 謂誰爲樂謂誰知. (亭記與詩 皆言樂不言知 故聊爲說之如此)

29) <過望雲亭有作>. 望雲亭外白雲飛, 人去亭空事却非. 唯見斷腸猿自哭, 有情應爲盡沾衣.

30) <謁濬源殿>. 東西萬里宅山河, 猶自粉榆眷戀多. 肖寫龍顏眞盡妙, 耳邊如聽大風歌.

31) <花川道中> 二首 “돌아보며 눈 쌓인 고개를 이별하고서(回頭送盡雪堆嶺)”, <화천에서 방향을 바꿔 풍악으로 들어가 수십 리를 다녔다. 계곡이 깊고 깊어도 사람 사는 연기는 끊이지 않는다(自花川轉入楓岳, 行數十里. 溪谷深邃, 人煙不絕.)>

32) <화천에서 방향을 바꿔 풍악으로 들어가 수십 리를 다녔다. 계곡이 깊고 깊어도

어 풍악산을 보게 되었다. 장안사, 정양사 등의 사찰 내방을 시작으로 풍악산 관광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풍악(楓嶽)> 4절(四絶)을 읊었다. 다음은 <풍악>이다.

老吳<sup>33)</sup>斫桂常多暇  
更斲蓮花萬二千  
散擲碧空根插地  
呀呀拍手烘群仙

노오가 계수나무 찍는 틈틈이  
일만 이천 연꽃을 깎아  
벽공에 던지니 뿌리가 땅에 박힘에  
하하하 손뼉 치며 기뻐하는 신선들

一一雕鏤獨殫巧  
化翁猶自費心機  
比將五岳堪雄長  
擬着三山定是非

조각마다 공교함 다하였으니  
조화옹 마음 다 쏟은 게로다  
오악으로 웅장함을 비견할만하고  
삼산과도 시비 정할만하네

排排比比如相競  
怪怪奇奇似有神  
只恐蓮花無盡朶  
如來葉葉解分身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듯  
괴기함은 신령이 서린 듯  
무수한 연꽃 송이  
석가여래가 잎사귀마다 풀어놓은 분신인가 보

萬朶蓮開濯露容  
千枝戟插洗霜鋒  
神仙失去蓬萊脚  
偷放花宮曉晚鐘

일만 송이 연꽃은 이슬에 젖은 듯  
일천 가지 창은 서리로 칼끝 씻은 듯 꽃혔네  
신선이 봉래산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화공의 아침 저녁 종소리를 엿듣누나

<풍악>에는 부제가 있다. 시인은 부제를 통해 풍악산을 본 일차적이고 원초적인 감동과 감격을 서술하였다. <풍악>에서 못 다한 시인의 감성이 또 다른 작품처럼 느껴질 만큼 사실적이면서 유쾌하게 풀어 쓴 글이

사람 사는 연기는 끊이지 않는다(自花川轉入楓岳, 行數十里. 溪谷深邃, 人煙不絕.)>

33) 老吳: 오강(吳剛). 한(漢)나라 서하(西河) 사람이다. 일찍이 신선술을 배우다가 게으름을 피운 죄로 달 속으로 귀양 가 계수나무를 베었는데 베는 자리마다 새로운 가지가 돋았다는 전설이 있다. 『西陽雜俎 天咫』

다. 운치있는 여행객의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우선 <풍악>의 부제부터 잠깐 보자.

세상의 승경 중에 이 산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예로부터 문인과 묵객으로서 유람 온 이가 적지 않건만, 그들이 완상하고 읊조리면서 전한 것 중에 또한 이 산을 묘사하여 그 빼어남을 온전하게 살린 시는 드물다. 평소 이 점을 항상 마음에 괴이하게 여겼다. 그런데 내가 직접 다니며 눈으로 보고 나서야 과연 조화옹의 솜씨는 시인의 붓끝으로 만에 하나도 형용할 수 없기에 웅문 거필의 선배들도 손댈 수 없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보잘것없는 솜씨로 서사가 쩡그리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나로서야 그저 웃음만 지을 뿐이다<sup>34)</sup>.

박세당의 <풍악>은 여행객의 경쾌한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임에 분명하지만 작품 면면히 살펴보면 색다른 이야기가 보인다. 오히려 부제에서 절경을 보고 감격하는 진정한 여행객의 환호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험한 기후로 인해 함경도로 가는 여정에 들르지 못하고 연시례가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들렀던 풍악산에 대한 감격은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의 순간이었나 보다. <풍악>에서는 풍악산을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일만 이천 봉우리는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자연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풍악산의 절경을 만들어질 수 없다하였다. 시인은 그 초월적 존재를 신선, 오강(吳剛)으로 설정하였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다. 신선계에서 쫓겨난 노오[吳剛]가 만들어 낸 것이 하필이면 불가의 상징인 연꽃[蓮花]이다.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일만 이천 개나 되는 연꽃들이 땅에 자리를 잡자 신선들[群神]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풍악>에서 보이는 신선과 석가여래는 사상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경계가 없다. 노오가 만들어낸 세상이 연꽃 세

34) 寶內之勝，莫過此山。自昔遊者文人墨客，非不多矣。其賞玩吟詠間有傳者，亦罕見摸寫此山，得盡其奇。平居常竊怪之，既身踐目窺，果知造化奇巧非毫墨所可形容其萬一，無怪乎前輩之鉅麗，亦不能措手。況以蕪陋欲效西隣之顰，只自索笑而已。

상이고, 그 연꽃 세상에 숨어서 신선들은 자신들이 가야할 봉래산을 잇고 산사[花宮]에서 나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주지하다시피 박세당은 원시도교나 원시불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탐색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다만 후세 사람들이 신선사상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불교가 원시성을 잃어버리고 흑세무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단시<sup>35)</sup>하게 되었다. <장안사 차월사운 증승미(長安寺 次月沙韻 贈僧美)>에도 박세당의 이러한 의도는 확인할 수 있다.

(전략)

道流俱疑是蓬萊  
浮屠傳信爲金剛  
二者皆從胸臆說  
磨之且可付杳茫  
但見銀鑿玉筍萬千千

천 봉우리들

東西南北羅列森相望  
秋霜葉染萬崖赤  
春風花發千澗香

(후략)

도사들은 모두 봉래인가 했고  
승려들은 금강이라 전해 왔었지  
두 사람 모두 억설을 따랐으니  
버려두고 우선 묘망함에 부쳐 두노라  
보이나니 은삼과 옥순 같은 일만 이

동서남북으로 뻗뻗이 늘어선 모습  
서리에 단풍 물들 때 만 벼랑 불타고  
봄바람에 꽃 필 땐 천 개울 향기롭네

<장안사에서 월사의 운에 차운하여 산승 미에게 주다(長安寺 次月沙韻 贈僧美)>

이 작품에서는 신선에 대한 박세당의 인식과 불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도사들은 삼신 제일 산인 봉래산이라 하고, 승려들은 『화엄경』에 기반을 두고 금강산이라 하지만 모두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풍악>에서는 드러냄과 동시에 숨기는 숨바꼭질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숨김과 드러냄은 결국 제목 <풍악>으로

35) 주영아, <박세당의 사상체계와 작품세계>, pp.46.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1.

절정을 이룬다. 불교의 표상인 금강산도 아니고 신선의 표상인 봉래산도 아니고 겨울산인 개골산도 아니다. 그저 서리 오고 단풍 물들 때는 만 개의 벼랑이 불타고, 봄바람에 꽃이 만발할 때는 수천 개의 개울에서 향기 나는[秋霜葉染萬崖赤 春風花發千澗香] 풍광이 뛰어난 경치 좋은 산이라는 의미의 풍악일 뿐이다. 풍악이면 그만이지 절경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의 강요가 필요하단 말인가. 모두 허탄한 억설(臆說)이라는 것이다.

풍악산 절경에 주체 못할 감회와 희열은 풍악산을 나오면서 아름다운 산을 다 보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sup>36)</sup> 하고, 옛시인들이 아름다운 산을 보고 싶어 나귀를 거꾸로 타고 걸었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님을 알았다는 깨달음을 표현하기도<sup>37)</sup> 하였다. 또 동행한 아들 태보의 시를 차운하여 풍악산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도<sup>38)</sup> 하였다. 풍악산의 여정은 단발령(斷髮嶺)<sup>39)</sup>을 넘으면서 승려 풍열의 배웅<sup>40)</sup>을 받고 추정에서 묵으면서<sup>41)</sup> 끝이 난다.

『후북정록』의 마지막 작품 <부용전운 도북변지락(復用前韻 道北邊之樂)>은 함경도에서의 즐거움과 변방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다. 못내 아쉬운 여행객의 긴 여운이 있다.

明月橋頭水  
春風樓上人  
平鋪素練闊  
醉倒玉壺頻

명월은 다리에서 물을 비추고  
춘풍은 누각에서 노닐게 하네  
넓게 펼쳐진 명주 같은 시내에서  
취하도록 자주 옥단지 기울였지

36) <出山>. 未了看山催出山, 何緣窮討得身閑. 蒼苔石上題名去, 他日摩挲待復還.

37) <出山後 路上不覺頻顧 因而有作>. 愛山還可買山居, 何苦當年倒着驢. 萬事終須身驗得, 始知潘閔意非疎.

38) <次泰輔出山詩韻>. 問余何事去遲遲, 慙愧傍人怪得癡. 西嶽三峯非絕好, 試看潘閔背山時.

39) <斷髮嶺>. 西崖東嶂合還開, 跋馬溪橋望幾回. 却爲因低看不盡, 盤盤更上嶺頭來.

40) <豐悅遣弟子 送至斷髮嶺>. 禪榻纔容一宿還, 野人猶復未全閑. 遠公見謂忘情久, 却遣閨梨送出山.

41) <下嶺宿楸井>. 已下斷髮嶺, 遂失毗盧巔. 世故被牽迫, 沿途但茫然. 寄語山中僧, 勿澆石上鐫. 他時倘復來, 留用記歲年.

其二

紅粧七十對  
鐵騎五千人  
塞下煙塵息  
軍中歌笑頻

단장한 기녀 칠십 명  
철기병 오천 군인  
변방에 연기와 풍진이 쉬었으니  
군중에는 노래와 웃음이 잦았네

其三

壯士劍看色  
佳人琴送情  
邊庭久無事  
閑向月中行

장사는 검을 뽑아 날을 살피고  
가인은 거문고로 정을 보내네  
변방 관아에는 오래도록 일이 없어  
한가로이 달빛에서 거니네

其四

鼓增戎士氣  
箭慴虜人情  
不廢投壺樂  
時看緩帶行

북소리는 병사의 사기를 돋우고  
화살은 오랑캐 마음 떨게 하네  
투호의 즐거움을 버리지 않았으니  
때때로 띠를 풀고 행하는 것을 보네

<다시 앞의 운자를 써서 북쪽 변방에 있을 때의 즐거움을 말하다(復用前韻 道北邊之樂)>

앞서 기술했듯이 박세당의 함경도 방문은 처음이 아니다. 박세당에게 함경도는 낯선 땅이 아니었다. 1664년에 병마평사(兵馬評事)로 부임하여 변방의 실정을 살핀 적이 있었고, 또 장남 태유가 함경도 고산 찰방으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함경도가 그리 생소하지는 않았다. 비록 호시절(好時節)로 기억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아들의 흔적이 있는 그곳이 마냥 불편하지만은 않았음을 위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

첫 연에서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변방에서 한껏 자유롭고 평온한 여행객을 표현하면서 시심(詩心)을 부르고 있다. 밝은 달과 막 시작되는 이른 봄바람, 더하여 풍취 좋은 곳에서 술병을 기울이는 그림은 눈에 잡힐 만큼 선명하고 또렷한 기억이다. 변방에 펼쳐진 자연의 풍광과 시인의 감성이 추호의 빈틈도 없이 하나로 이입(移入)되어 있다.

이 작품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내용의 전개나

전환에 의한 극적인 반전 등에 있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시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시상(詩想)으로 계산된 의미의 확산이 아니라 함경도 변방의 일상에서 오는 여운이다. 후방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군대의 일상이 전방인 함경도에서는 늘상 있는 생활의 일부임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두 번째 연[其二], 세 번째 연[其三], 네 번째 연[其四]은 함경도가 변방으로서 군사지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함경도에 병마평사가 1664년(현종5)에 다시 설치되면서 1666년 시인 자신이 병마평사로 부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대와 병졸의 모습이 함경도의 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 박세당은 6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병마평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시기는 전쟁이나 국경에 대한 분쟁이 없던 평온한 시기였지만 긴 시간 변방에서의 군졸의 군역은 쉽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평온한 시기가 오래되었지만[塞下煙塵息 변방에 연기와 풍진이 쉬었으니 // 邊庭久無事 변방 관아에는 오래토록 일이 없어] 변방의 군영(軍營)에서 군졸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壯士劍看色 장사는 검을 뽑아 날을 살피고]. 평화로운 일상적인 삶에서조차 군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鼓增戎士氣 북소리는 병사의 사기를 돋우고, 箭懼虜人情 화살은 오랑캐 마음 떨게 하네]을 보여준다. 또 이곳에서는 궁마(弓馬)를 일삼기 때문에 대대로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함경도에서 나는 말을 진상한다는 기록<sup>42)</sup>으로 보아 무장한 기마병[鐵騎五千人 철기병 오천 군인]에 대한 자긍심이

42)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백사집(白沙別集)』 권2 「계사(啓辭)」 <산릉심정계 6(山陵審定啓六)>의 “북쪽 변방 사람들은 오로지 궁마(弓馬)를 일삼기 때문에 그 고장 풍속이 서로 전해 오면서 말[馬]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재품(才品) 있는 말은 본도에서 일일이 찾아내서 삼명일(三名日)의 봉진용(封進用)으로 삼고 이미 봉진한 뒤에 마첩(馬帖)만 지급하는데, 원도(遠道) 사람으로 마첩을 가지고 말을 받은 자는 백에 한둘도 없고 실상은 끝내 무용(無用)한 데로 돌아가고 마니, 극히 미안합니다. 함경도(咸鏡道)에서 진상(進上)한 모든 마가(馬價)에 대하여 즉시 본도로 하여금 본도의 장마(場馬)를 허급(許給)해서 기능(技能)을 잃지 않게 하도록 하고, 아울러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작해서 재가(裁可)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라는 기록을 참고하였다. 주영아, 「관북환유기, 북정록 연구」,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17집, 재인용.

대단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연구자로서 덧붙이자면 이 작품이 『후북정록』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1666년의 함경도 환유기(宦遊記)인 『북정록』의 환로(宦路) 잔상을 상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5.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후북정록』에 등재된 작품 53제 76수를 살펴보았다. 『후북정록』은 1688년 조부 박동선과 부 박정의 연시례에 참석하기 위해 함경도로 향하던 도중에 시인이 만나게 되는 지형지물을 통해 시인이 갖는 즉물적 감상과 회고를 잔잔한 여운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풍악산에 가고자 했던 절실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풍악산에 대한 기대와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박세당의 시쓰기는 철저하게 의취와 정감을 위주로 표현하는 사의도정(寫意道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미로 다가오는 뜻은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자 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정감은 억지로 꾸며 서걱거리지 않게 하려 했다. 『후북정록』에 실린 작품들의 대부분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이 『후북정록』의 유람시를 더욱 생동감 있게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후북정록』의 특이한 점을 살펴본다면 연시례에 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연보의 기록이나 『후북정록』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었다면 이 작품들을 쓴 계기가 무엇이었고, 왜 함경도에 갔고, 왜 겨울에 풍악산에 들렀는지를 몰랐을 것이다. 『후북정록』에서 철저히 연시례에 관한 행사장면이나 감회에 관한 언급을 숨기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박세당의 글쓰기 형태로 추정하자면 분명 연시례에 대한 사실기록문이나 작품이 따로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간 박세당을 연구하면서 그의 글을 고구함에 그는 철저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글과 문학작품을 구분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비록 연시례가 의례로 치러지는 형식적인 행사일지라도 반남가에 있어 연시례는 결코 가볍게 넘길 행사가 아니었다. 『후북정록』에 연시례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박세당이 함경도를 가게 되는 배경과 『후북정록』에 등재된 작품을 고구해 보았다. 그가 남긴 『동행습냥』 『잠고』 『북정록』 『후북정록』 『사연록』 『석천록』상, 중, 하 등의 시집 중에서 정제되면서도 경쾌한 모습을 담긴 시집이 『후북정록』이다. 비록 기후가 좋지 않아 변방을 오가면서 겪은 여정도 보이지만 이것마저도 작품에서는 인생과 자연의 섭리로 소화하고 있어 평이한 듯하면서도 고차원의 내면 성찰을 이루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후북정록』은 박세당의 공식적인 마지막 유람기록이다.

본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시 함경도의 군역이나 군생활, 기생과 중앙관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사실 등 함경도 변방의 생활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도를 달리하여 많은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지만 본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여기서 아쉬움을 접기로 한다.

## 참고문헌

남구만, 『약천집』

남극관, 『몽애집』

민족문화추진회 역, 『신증동국여지승람』

박세당, 『서계집』

박태보, 『정재집』

『숙종실록』

『인조실록』

강혜선, 「17, 18세기 금강산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강혜선, 「조선후기 금강산도와 금강산시」, 『한국한시연구』, 한국한시학회, 1998.

김혈조, 「한문학을 통해 본 금강산」, 『한문학보』, 우리한문학회, 1999.

박은순,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1997.

신두환, 「식산 이만부의 金剛山記에 나타난 문예미학」, 『한문고전연구』,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금강산 유기」, 『한문학보』, 우리한문학회, 2005.

이경수, 「16세기 금강산 기행문의 작자와 저술배경」, 『국문학연구』, 국문학회, 2000.

이문희, 「金剛山 紀行文學 研究」, 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00.

이종묵, 「조선 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한국한시학회, 1998.

이혜순 외, 『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주영아, 「박세당의 사상체계와 작품세계」,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1.

<Abstract>

## A Study on Park se-dang's Hubukjeongrok(後北征錄)

- Focusing on the Frontier Travel and Poem Writing

Joo, Young-ah

This study is a consideration on the travelling diary titled Hubukjeongrok(後北征錄) that Park Se-dang had been to Hamgyeong Province in 1688. Hubukjeongrok is the collection of poems, which gathered the pieces that Park Se-daong wrote focusing on the inspiration of geographic features of being met in a trip that he made for participating in Yeonsirye(延諡禮) by his grandfather Park Dong-seon(朴東善) and his father Park Jeong(朴炡).

Park Se-dang's poetry reveals poetic emotion based on the very realistic, sensible, actual, and experiential contents. Even a work of Hubukjeongrok isn't exceptional. Many parts among poems with 53 subjects and 76 pieces number are revealing a practical turn of mind when encountering an object or a situation available for feeling tension and relief at the same time that can be given in a poem by not hiding but revealing a poet's dramatic emotion.

This study examined on the basis of his syntax and contemporary opinion rather than being based on Park Se-dang's theory of Chinese classics in considering Hubukjeongrok. He said that a sentence needs to be based on the simple and logical description and that a poem needs to be expressed focusing on own mind and feeling. In other words, he

emphasized on which the writing doesn't crunch only when being consistent and that the contents need to reveal the untouched emotion plainly. The aim was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his work based on syntax and contemporary opinion in this way.

**Key words** : Park Se-dang, Hubukjeongrok, Hamgyeong Province, Frontier, Travelling diary, Yeonsirye, Sauidojeong

투고일 : 2015년 1월 11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